

현대시 개론

I. 독해편

0. 대전제 : 시를 이미지화하며 읽는다.

시라는 것은 **정서와 이미지를 압축한** 액기스 같은 장르이다. 그렇기에 정서와 이미지 모두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를 이미지화하며 읽을 수 있을까? 재미있는 소설을 읽는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텍스트를 읽으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등장인물과 공간 등을 머리 안에서 상상하며 읽게 된다. 시도 이와 마찬가지로. 물론 시는 **추상적인 언어가 산재**하기에 이미지화가 마냥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이해 가능한 부분을 **파편적으로 기억**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가져야 할 태도이다.

1. 보기를 읽는다.

문학이 애매해서 어렵다는 질문을 주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 중 <보기>의 정보를 간과한 경우가 태반이다. **문학이란 다양한 해석과 감상이 허용되는** 장르이다. 그렇기에 평가원은 우리에게 감상과 **해석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도구인 <보기>**를 준다. <보기>는 3D 안경과도 같은 존재이다. 3D 영화관에서 블루라이트 필터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눈 건강을 부지할지는 몰라도 영화는 흐릿하게 보일 것이다. 본인의 주관이 아니라 <보기>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 지문을 보는 것이 문학을 기계적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푸는 방법이다.

<보기>를 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작품의** 주요 소재, 주제, 화자의 상황 또는 태도 등의 **정보**를 얻는다.
- **정서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2. 작가를 확인한다.

아는 작가가 등장한다면 반가운 경우가 더러 있다. 단순한 마음의 안정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아는 작가가 나온다면,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소월, 김영랑, 이육사, 윤동주 등 잘 아는 시인을 현장에서 마주한다면 작품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가령, 윤동주의 작품이 추상적인 언어로 <보기>도 없이 등장한다면 우리가 작품의 성격을 아는 방법은 '작가가 '윤동주'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뿐이다. 윤동주의 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반성과 성찰의 태도를 나침반 삼아 지문을 독해하는 것이다.

3. 제목을 확인한다.

제목의 사전적 정의는 '작품이나 강연, 보고 따위에서, 그것을 **대표**하거나 **내용**을 보이기 위하여 붙이는 이름'이다. 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대부분의 제목은 후술할 시적 대상과 지대한 연관성이 있다.

4. 화자와 시적 대상을 파악한다.

화자와 시적 대상 간의 관계는 감독과 주연들과도 같다. 시인이 창조한 시적 세계에서 서로 관계를 형성하며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셈이다. 수험생들은 **화자는 시 속의 '나'**라는 것 정도쯤은 잘 이해하고 있으나, 시적 대상에 관한 이해는 그에 한참 못 미친다. 그렇다면 **시적 대상**이란 것은 무엇일까? 수능 문학의 범주 내 가장 간단한 정의는 시 안에서 화자가 가장 **중심적으로 조망**하고 있거나 화자와 직접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다. 이런 설명 또한 수험생들에게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에 **제목과 소재를 통해 시적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5. 대전제를 지키며 정서를 확인한다.

앞서 서술했듯이 시는 이미지와 정서가 압축된 형태이다. 그렇다면 정서를 어떻게 판단할까? 정형화되지 않은 현대시의 정서를 **정확히 무엇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허나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수능 국어는 정확한 정서를 서술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우리는 **대상의 긍정과 부정만을 판단**하고 선지의 정보 내 긍정과 부정을 **비교하고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보면 그만이다. 거기에 <보기>를 통한 시에 대한 이해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다.

II. 풀이편

1. 문제 유형

- 표현상의 특징

첫 번째 문제이기에 과소평가하기 일쑤지만, 막상 푸는 데에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도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유형이다. 그 이유는 판단이 어려운 주관적인 선지에 대해 1번부터 순서대로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다. 각 선지를 **가볍게 살펴**보며 확인하기 **쉬운 것들을 위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 좋다.

- 시어 및 구절에 대한 이해

보통 시상의 전개를 이미지에 기반하여 묻거나 시어에 담긴 의미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미지에 기반하여** 묻는다면 지문과 선지의 **비교**를 통해, **시어의 의미**를 묻는다면 시어가 담고 있는 **긍정 혹은 부정적 요소**로 파악하면 되겠다.

- 보기 문제

푸는 방식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1. 파악한 **정서를 기반**으로 빠르게 선지를 판단한다.
2. 위의 단계에서 답이 나오지 않았다면, **지문의 내용과 비교**하여 답을 찾는다.

두 번째 단계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정리해둔 다음의 네 가지 대표적인 오답 유형들을 살펴보자.

2. 오답 유형

- 과해석

과해석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김철수는 사과를 좋아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해당 내용을 과해석하여 선지로 구성한다면,

“김철수는 사과를 반려의 대상으로 좋아한다.”라는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이런 유형은 정답률 30%대 킬러 문제에서 정답보다도 많이 선택된 선지였다. **과해석의 여지**가 보이는 선지는 정서 파악의 단계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것이다**.

- 모순 : 선지

선지 안에서의 모순은 <보기>문제분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오답 유형이다.

선지에 “a는 b를 통해 ~a(not a)를 나타낸 것이겠군”이라는 내용이 제시되는 경우, 우리는 **지문 및 보기와 무관하게** 해당 선지를 오답이라고 고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간 단축**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 모순 : 보기

<보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를 해석할 수 있는 매우 큰 근거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보기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반대**된다거나, 보기에 **없는 내용**은 무조건 오답이라 볼 수 있다.

- 없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의 선지이다. 없음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선지를 뜻하는데, **없는 것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매우 까다롭다. 이것 또한 과해석과 비슷한 논리로 **혼자 엮나간 선지를 염두**에 두자. 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였다면, 파악한 내용과 비교하여 우선 소거해둔 후 정오를 판단할 수도 있다.